

제목: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학과: 융합경영학부-경영학전공 학번: 202210151 이름: 채수빈

1. 서론

현재 전세계는 월드컵 열기에 빠져 있다. 나 또한 월드컵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특히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2022.11.21. ~ 12.19 카타르 월드컵 기간이다. 서울, 경기도, 인천, 대구 등등 사람들은 거리 응원을 하고 있다. 그만큼 월드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이다. 월드컵이란 FIFA의 주관 하에 1930년부터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대표 팀을 가리는 국가대항전으로, 단일 종목 스포츠 행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대회이다. 이러한 국제적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마다 중계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꽤나 오래전부터 이러한 논란들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예전 기사들을 한 번 찾아보았다. 한 기사에 따르면,¹⁾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하여 아래 글을 보도록 하겠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를 놓고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KBS와 MBC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KBS와 MBC는 이날 오전 각사 공동 명의로 "(향후)올림픽과 월드컵 경기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SBS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BS와 MBC는 조정신청서에서 "SBS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는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SBS 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글에서 보듯 월드컵 독점 중계권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독점 중계로 인해 SBS를 제외한 KBS와 MBC는 SBS 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본론 1

나는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근거로는 방송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방송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은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²⁾

-
- 1) 정진호 기자 이미영 기자, “지상파 3사,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 놓고 전면전”, <아이뉴스24>, 주소: <https://www.joynews24.com/view/471919>, 입력 2010.01.26 12:18 | 수정 2010.03.18 17:51
 - 2) 홍승완 기자, “SBS 월드컵중계권도 독점?”, <헤럴드경제>, 주소: [SBS 월드컵중계권도 독점? \(naver.com\)](https://www.naver.com), 입력 2006.08.08. 오후 2:38,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하여 아래 글을 보도록 하겠다.

“3사는 이날 저녁 뉴스에서도 격돌했다. KBS는 "방송 3사의 사장단이 중계권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는데도 SBS가 이를 깬다"고 비판했으며, MBC는 "상업방송인 SBS가 돈의 힘으로 시청자를 샀다"고 맹비난했다. SBS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두 방송사가 왜곡하고 비방하고 있다"고 맞섰다. KBS와 MBC 양사는 SBS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위 글에서 보듯 방송사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두 번째 근거로는 국가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세 방송사가 합의해서 중계하면 적은 돈으로 중계권을 사올 수 있는데, 한 곳이 독점하려면 불필요한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쓸데없이 외화를 유출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월드컵 중계권 독점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로 크게 “돈”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 해보았다.

3. 본론 2

나는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 본론 1에서는 크게 “돈”과 관련해서 근거를 작성해보았다. 이번 본론 2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월드컵 중계권 독점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근거를 작성해볼 것이다. 첫 번째로 월드컵과 같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일종의 공공재를 영업의 자유만을 내세우며 단독 중계 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그 다음 근거로는 하나가 독점하게 되었을 때 비용부담이 크며 마지막 근거로는 공영 방송 여부를 떠나 국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경기를 보면서 한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보다는 보다 풍부한 해설과 영상편집, 보충 자료화면, 연출 등 다채로운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스포츠 중계를 원한다는 것이다. 한 블로그에 따르면, ³⁾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하여 아래 블로그를 보도록 하겠다.

“KBS와 MBC는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내세워
국민관심행사는 시청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해야

KBS와 MBC 측의 주장은 '보편적 시청권'을 근거로 합니다. 방송법 제76조 제 3항에 따르면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SBS가 중계권을 독점할 경우 시청하지 못하는 지역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 중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송사 고래싸움에 등터지는건 국민들

3)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독점 이유, SBS 기자에게 들어보니|작성자 오반석 변호사, 작성일:2010. 1. 27. 5:01, 주소: <https://blog.naver.com/saheilu/90079736540>

온 국민 하나되어 울고 웃던 국제 이벤트 시대 위협받을지도

2010년 올한해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많습니다. 이제 동계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여름이면 태극전사들이 남아공 월드컵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SBS와 KBS, MBC 사이의 독점중계 및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질 것입니다. 각 방송사들의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비교하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BS 기자 분이 말한 독점중계에 대한 그들의 입장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민들로서는 온 국민이 하나되어 울고 웃던 올림픽과 월드컵이라는 잔치가, 방송사간의 다툼으로 인해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하는 새로운 근심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위 블로그에서 보듯 오반석 변호사님도 월드컵 월드컵 독점 중계는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 채널에서 독점하게 되면 시청하지 못 하는 지역이 생기므로 독점 중계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단독 중계는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며, 전국민이 시청해야 할 국제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들은 TV에서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들의 의견으로는 (반론으로는) 방송 3사가 같은 화면을 해설자와 캐스터만 바꿔 동시 중계하여 시청권을 제한하고 있다. 라는 것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서 다시 이야기 해보자면 (재반론) 단독 중계는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한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되는 스포츠 경기 및 행사가 공영방송을 포함한 무료 방송사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방송권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시청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처럼 시청자 즉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의 방송 3사가 같은 화면을 해설자와 캐스터만 바꿔 동시 중계하여 시청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반대 의견으로는 (반론2) 단독 중계는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며, 스포츠 중계가 보기 싫은 시청자는 얼마든지 다른 채널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측의 의견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재반론) 월드컵과 같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일종의 공공재를 영업의 자유만을 내세우며 단독 중계 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단독 중계가 스포츠 중계를 보기 싫어하는 시청자들에게 다른 채널을 선택하면 된다는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스포츠 중계가 보고 싶은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은 보장 되지 않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 기사에 따르면, 4)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하여 아래 글을 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만한 대목은 바로 제작진이 심어놓은 ‘메시지’였다. 제작진은 TV 리모컨에서 수도권 지역 SBS의 아날로그 채널 번호인 ‘6번’ 버튼을 빼놓는가 하면, MC들이 월드컵을 시청하는 TV 화면을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자막 등을 통해 ‘월드컵도 마음대로 못 보는 더러운 세상’을 비꼬았다.

4) 김고은 기자, 승인 2010.06.28. 17:36, Pd JOURNAL, <SBS 월드컵 독점중계가 예능에 미친 영향>, 주소: [SBS 월드컵 독점중계가 예능에 미친 영향 - PD저널 \(pdjournal.com\)](http://pdjournal.com)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 같은 상황은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를 둘러싼 방송사간의 신경전이 부른 촌극임에 틀림없다. ‘남자의 자격’은 27일 방송에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도 함께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 역시 SBS가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4년 뒤에도 이처럼 방송사들이 뉴스와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을 두고 봐야 할까. 부디 이번 같은 촌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위 기사에서 보듯 월드컵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은 결국 시청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월드컵을 한 방송사가 독점하여 중계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해보았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월드컵 중계권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 3사가 손잡고 같이 움직여야 하며, 항상 시청자 즉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방송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방송사가 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질책만 받을 것이다. 앞으로 모두를 위해 월드컵 독점 중계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